

## 신기술을 마주한 군인의 자세

챗GPT는 전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군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은 현재 드론봇, 감시체계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전력화에 매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병과인 나는 AI·소프트웨어(SW)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시범부대인 육군5군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던 중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네이버의 신사육을 견학하는 기회가 생겼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IT) 기업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호기심을 안고 AI 동아리 장병들과 신사육에 발을 내디뎠다.

이곳에서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실현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커피와 택배를 직원들에게 배달하는 로봇들. 안내자는 로봇이 AI 기반 클라우드와 통신하며 경로를 설정하고, 전장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엘리베이터도 탑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커피를 배달하는 모습, 사람을 만



김승민 대위  
육군5군단 정보통신단

났을 때 멈추고 피해 가는 모습을 보며 로봇 사회가 곧 여러 곳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AI 기술과 미래 과학기술 추세를 소개받았다. 기업이 바라보는 미래 기술의 시각은 구체적이고, 방향성이 확실했다. 더 똑똑한 AI의 발달은 지속될 것이며, 그것은 무조건적인 다량의 데이터가 아닌 정제된 유의미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내용은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이었다. 예전에는 면접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 가운데 나은 사람을 원했다면 이제는 검증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답변은 간단했다. 부딪쳐보고 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어필하라는 것. 학력도 중요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를 원한다면 창업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그렇다면 군인인 나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 국가 수호를 위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AI와 기술의 발전도 안보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키는 것은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첨단 미래 기술이기도 했다.

둘째, AI 교육장 시범 구축 부대로서 장병들이 미래 기술을 공부하고 사회로 돌아간 뒤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탐구하며 군 생활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 역시 미래 군이 나아가갈 방향을 탐구하며 유능한 장교로 거듭나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정보통신기업 견학은 내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었다.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노력하는 것이 소명 아닐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

## 행동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다



구자승 육군병장  
국군의무학교

입대 전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나는 전군 의무요원 양성과 보수교육을 책임지는 국군의무학교에서 의무전술학처 조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수교육학에서는 같은 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학생 특성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한다. 교육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과정별 단계를 설정해 학생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계획에 따른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단계별 상황에 맞춘 유기적인 연계성도 매우 중요하다. 전시 임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군 특기교육 역시 언제든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생명을 구호하는 의무 분야는 실제 처치자로서 다양한 상황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무전술학처는 최근 '단계별 행동화 교육훈련 최적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이동진료반, 야전 처치시설, 채혈반·정신건강반, 화생방 상황 대응 등 4개의 대과제와 과제별 난이도에 따른 3단계, 단계별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교육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의무전술학처 교관·조교들은 각 과제별 전투실형을 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임무형 보호테세(MOPP)에 따라 화생방 보호의를 착용하고 환자를 처치하는 과제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조교들과 임무를 분담하며 환자를 처치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MOPP 상황이 부여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방독면 때문에 시야는 좁았고, 팀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고립된 느낌이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큰 부담감을 안고 처치를 시도했다.

행동화 과제를 직접 수행해본 결과 복합 처치가 필요한 환자 및 전술 상황을 부여하는 방식은 군 의무요원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병과교육 때 배운 전투부상자처치(TCCC), 대량 전사상자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실제 전장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동화 과제 교육·실습으로 전시 복합 손상 환자를 마주했을 때 능숙히 처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특히 전시 핵·화생방 위협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공격양상에 대비한 처치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

단계별 행동화 교육훈련 최적화 모델은 전투 상황에서 실천적인 술기를 발휘하는 의무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앞으로 이 모델이 적용됐을 때 실험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발전하는 군 의무교육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국군의무학교 구성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킹콩교육대

과거 신병들은 여단으로 전입 오면 1~2주 안에 동화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실무부대 생활을 했다. 하지만 동화교육이 짧다 보니 교관과 신병 모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신병들의 실무부대 걱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동화교육과 적응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단은 변화를 선택했다. 2개월 동안 '킹콩교육대'라는 이름으로 중대급 교육대와 담당 교관을 편성해 동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킹콩교육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대 운용의 제한 요소가 많고, 결과 기대가 낮은 탓이었을까? 동화교육 기간 확대를 선택 추진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여단은 미래의 긍정적 영향을 위해 동화교육 개선을 추진했다. 선진화된 '사람 중심의 해병대' 윤곽을 만들기 위해 2개월이란 기간은 가치가 있는 투자였다.

물론 시작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모든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식·주 문제는 물론 교육 계



정성진 상사  
해병대1사단 킹콩여단

획을 수립하고, 교육대 공간을 확보했으며, 교관을 지정했다. 그리고도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 지난 3월 첫 전입 신병 동화교육을 했다. 여단의 애칭을 단 킹콩교육대는 기존에 없던 '더 센(The SSEN) 해병 프로젝트'와 '잇츠 마린(It's Marine)' 등 해병대 정체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킹콩교육대는 실무 장병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오로지 동화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실무 전입 후 선임으로부터 인계될 수 있는 부조리한 병영생활을 차단하고, 간부에 의한 병영생활 교육을 받아 객관화된 생각과 올바른 인식으로 해병대를 바라보게 하자는 것이다. 또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내성을 갖추

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 전입 후 받게 될 제대별 특성과 훈련 외에 전투사격, 생존술, 실전체력, 심폐소생술 등 모든 훈련을 킹콩교육대에서 숙달해 자신감을 키우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킹콩교육대 책임자로서 부산히, 그리고 부단히 활동하면서 "교육대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무 장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격려도 들었다. 수료를 앞둔 장병들 어깨 너머로 자신감이 느껴졌고,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킹콩교육대 신병들은 더욱 강하고 알차게 성장했다. 그 속에서 끈끈한 동기가 생겨난 것은 덤이다.

킹콩교육대에서 첫 걸음을 뗀 해병들은 체계적인 동화교육의 필요성을 직접 보여줄 것이다. 이들은 해병대의 밝은 병영문화를 선도하고, 전우를 아끼며, 해병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미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래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7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장병은 부대 정통 계통 문의)로 제출  
 기타: '병영의 창'에 게재된 분에게는 매일 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md.mil  
 문의: 군 전화 947-3718, 일반전화 02-2079-3718